



▲ 6월 6일은 스웨덴 국경절이자 최대 명절이다. 6월 5일부터 7일까지 파룬궁수련자들이 스톡홀름 노벨박물관 앞의 진상 부스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파룬궁의 아름다운 연공 음악과 평온하고 상서로운 연공 장면은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바쁘고 붐비는 가운데서도 평온함과 상서로움을 체험케 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료를 받고 진상 패널을 읽었고 잇따라 파룬궁수련자들의 박해 반대를 지지하는 서명을 했으며, 공법에 관심이 있는 적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파룬궁을 배웠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55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262만 5192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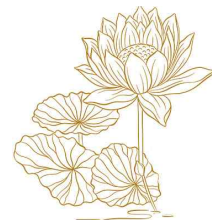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



#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94期(2026.06.12) WWW.MINGHUI.ORG

한글판 1058호 [minghui.or.kr](http://minghui.or.kr)



▲ 캐나다 동부 파룬궁수련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연공을 하고 집회를 열어 중공의 27년에 달하는 박해와 초국가적 탄압에 항의하며, 캐나다 정부가 행동에 나서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 주요 내용

【편집부】 통고

【수련】 원망심을 닦아버린 체험

【수련】 집착심을 찾자 어머니 밭의 부기가 빠지다

【수련】 수동적으로 집착을 제거하던 데서 능동적으로 수련하기

## 〈목차〉

### ■ 명혜편집부

통고 ..... 3

###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 5

### ■ 중국소식

쿤밍 디젠차오 또 불법 판결, 변호사가 경찰의 수사 및 증거 수집 절차 위법 주장 ..... 14

후난성 컴퓨터센터 소장, 불법 투옥되어 10가지 고문 당했다 ..... 17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 20

### ■ 수련교류

알고 보니 법공부를 방해한 것은 업력으로 구성된 ‘가짜 나’ ..... 22

원망심을 닦아버린 체험 ..... 24

집착심을 찾자 어머니 발의 부기가 빠지다 ..... 28

수동적으로 집착을 제거하던 데서 능동적으로 수련하기 ..... 33

시련 속에서 근본 집착을 수련해 없애다 ..... 39

경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 48

### ■ 시사평론

‘정보의 일방성’, ‘제3자 검증’ 그리고 ‘뉴스 균형’에 관해 ..... 63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혜망을 지지하고 명혜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곧 공정하고 정의로운 역사를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류의 손실을 줄이는 일이다.

### 주석:

[1] 역사학자 데보라 립스타트(Deborah Lipstadt)의 저서 ‘믿을 수 없는 일: 미국 언론과 다가오는 홀로코스트(Beyond Belief: The American Press and the Coming of the Holocaust, 1933-1945)’, 1986년 출판.

[2] ‘뉴욕타임스’ 공식 데이터베이스(TimesMachine):

1942년 6월 27일, ‘뉴욕타임스’는 ‘폴란드 유대인 70만 명 학살’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수십만 명의 생명과 관련된 이 지극히 충격적인 소식은 결국 5면의 아주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실렸다.

1942년 11월 26일, 미국 국무부가 마침내 나치가 ‘모든 유대인 소멸’ 계획을 실행 중임을 확인했을 때 ‘뉴욕타임스’는 10면에 찔막한 기사를 실었을 뿐이며 동시에 이에 대한 나치 당국의 부인도 함께 나란히 실었다.

[3] ‘뉴욕타임스’의 ‘오류 인정 성명’: 2001년 11월 14일, ‘뉴욕타임스’는 창간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 편집국장 막스 프랑켈(Max Frankel)이 작성한 반성글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해당 언론이 인류 역사상 최대 만행인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보도할 때 당시 편집부가 의도적으로 보도의 중요성을 낮췄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믿지 못하거나 선택적으로 무시하는' 집단 심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 명혜망: 우리는 역사를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록과 전파'일 것이다. 박해 사실을 기록해 더 많은 사람이 박해 진상을 알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박해에 저항하고 박해를 저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치 시대에는 많은 글과 사진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중공의 높은 장벽과 인터넷 봉쇄가 있고 소멸식 박해가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명혜망은 이 박해가 시작된 첫날부터 꾸준히 대량의 1차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왔다. 사례, 사진, 사건 추적, 명단, 통계부터 연월일과 당사자 공무원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한 내용이 사건 발생 후 단 며칠, 몇 달 만에 해외로 전달돼 대중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것 자체가 무수한 개인이 목숨을 걸고 중공과 '역사 기록권'을 다툰 성과이자 역사적 증거다.

인류는 아마 자신의 냉담함과 잔인함을 영원히 근절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기록'과 '기억'이 단절되지 않는 한 중공 정권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결과, 즉 파룬궁수련자라는 피해자 집단과 그 안의 각 개인의 이름, 명예, 겪은 일, 육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목적을 영원히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명혜망의 기록은 중공이 역사에서 자신의 죄악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명혜망의 굳건한 노력은 수많은 파룬궁수련자, 특히 중국 내 박해 소용돌이 속에 있는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발언권을 제공하고 해외 대중의 시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했다.

## 명혜편집부

### 통고

[명혜망] 중국에 여전히 사모님께 돈을 기부하라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청두(成都)시에 자신을 산시(陝西)성 바오지(寶鷄)시의 퇴직 수련자라고 소개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녀는 해외 불학회에서 중국으로 돌아왔다는 사람을 알고 있다며, 그를 통해 이미 200만 위안 이상(이는 취합된 금액으로 다른 수련자들의 돈도 포함됐을 수 있음)을 기부했고, 그 돈은 모두 사모님에게 갔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지금 계속 모금하고 있어 일부 청두 수련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사례는 각지에서 여러 차례 나타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수련자들 사이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수련자 스스로 찾아가 사기를 당하는 일이 한두 건 벌어진 것이 아니며, 각국과 각지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부 수련생들은 명혜망을 빌려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를 희망했다.

- 중국 안팎의 중국공산당(중공) 스파이들이 초한전(超限戰)의 중요한 일부로 경제전을 벌이고 있으며, 그들은 타격 대상의 재산을 최대한 빼앗으려 한다.('경제적으로 파탄 내기')

- 2019년 이후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사기꾼이 늘었고, 그중 일부는 수련자들의 선량한 마음과 쉽게 믿는 성향을 이용해, 특히 노년 여성 수련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있다.

옛사람들은 “파리는 틈이 없는 계란에 달라붙지 않는다”라고 했고, 현대인들은 “상대에게 욕심이 있으면 다루기 쉬우나, 아무런 기호가 없는 사람은 공략하기 어렵다”, “한 사람을 포섭하는 첫걸음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취미를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수련자들을 파멸시키려는 생명들은 “당신이 무엇을 집착하면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한다.

도덕이 타락한 난세에서 사부님께서는 이미 지난 2000년 6월 ‘원만을 향해 나아가자(走向圓滿)’라는 글을 써서 대법제자들에게 명확히 일깨워주셨다.

“지금 낡은 악의 세력이 대법(大法)을 박해하는 가장 큰 구실 중 하나가 바로 당신들의 근본적인 집착이 덮어 감춰진 것임. 그리하여 이 난을 더 크게 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이 사악한 사람을 통제하여 사람의 일체 마음, 일체 집착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빠짐없이 와해(瓦解) 식으로 대법(大法)과 제자를 검증하고 있다. 만약 당신들이 진정하게 수련 중에서 사람의 그러한 근본 집착을 제거해 버릴 수 있다면 최후의 이한 차례 마난(魔難)은 이렇듯 사악하지 않을 것이다.”

진수(眞修) 대법제자들은 모두 이 글을 외워 자신과 대조해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더는 사기꾼들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성과 명석함을 유지할 것을 건의한다.

명혜편집부

2026년 6월 8일

이 반성은 두 가지 핵심적인 현대적 공감대를 남겼다.

- ‘균형’의 한계: 한쪽은 절대적인 국가 기구를 장악하고 정보를 철저히 봉쇄할 수 있는 권력 집단이고 다른 한쪽은 언제든지 생명이 소멸될 수 있는 개인이나 약자 집단일 때 절대적인 ‘양비론’적 ‘균형’은 종종 권력의 거짓말을 합법화하는 결과로 변질된다.

- ‘주장’에 대한 재검토: 고도로 폐쇄적인 박해 메커니즘 앞에서는 외부에서 이상적인 ‘제3자 독립 검증’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생존자에게서 나온 대량의 ‘일방적 진술’이 세부적으로 높은 상호 증명성과 규칙성을 띠지 않을 때 국제사회와 언론은 이를 단순히 ‘입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간주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국제 개입이나 독립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불행히도 역사가 되풀이되어도 인류는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전철을 밟고 있다.

### 나치의 자신감과 오만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이자 이탈리아의 국보급 작가, 화학자인 프리모 레비(Primo Levi)는 수용소 안에서 나치 경비병들이 수감자들에게 가장 자주 하던 말이 “이 전쟁의 결과가 어찌 되든 너희들에 대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이겼다. 너희 중 살아서 증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군가 살아남는다 해도 세상은 너희를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너무 야만적이고 상상하기 어려워 분명 너희가 날조한 선전물이라고 말할 것이다. 역사는 우리가 쓸 것이다”였다고 적었다.

이런 ‘일이 너무 잔혹해 외부에서 믿고 싶어 하지 않고 감히

서구 주류 언론이 나치 독일을 보도할 때 여전히 ‘뉴스 균형(balanced reporting)’과 ‘객관적 중립(neutral or objective)’을 이유로 언론 규범에 따라 독립적인 법정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도 중 ‘지목(Allegations)’, ‘주장(Alleged)’ 등 어휘만 사용할 수 있었고 이와 함께 나치 공식 부인 성명을 게재해 ‘균형’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나치 독일의 수용소 시스템(다하우,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등)은 고도로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워 외부에서 진입해 조사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 검증’은 아예 실현 불가능하거나 아주 쉽게 나치의 선전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뉴욕타임스’는 유대인 집단 학살에 관한 보도를 내지의 아주 작은 지면에 배치하기까지 했는데, 편집부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주장’을 크게 보도하는 것은 ‘엄격한 균형’이라는 뉴스 전통에 어긋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1][2][3]. 하지만 사실은 어떠한가? 이는 언론이 선택적으로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를 무시하고 ‘일방적’이라고 깎아내린 것으로 편향된 것이지 치우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진실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지 사실에 충실한 언론의 전문적 행위가 아니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반성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의 범죄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철저히 폭로된 이후 전 세계 언론계와 역사학계는 깊은 반성을 했다. 사람들은 당시 언론이 ‘절차적 균형과 객관성’을 추구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지옥의 진실을 덮는 공범이 됐음을 발견했다.

## ■ 해외 종합 ■

###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6월 6일은 스웨덴 국경절이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스톡홀름 노벨박물관 앞에 마련한 진상 부스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미국에서 온 관광객 루이스와 그의 70대 부모 일가족 3명은 행사 현장에서 진상 패널을 자세히 읽은 후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온 가족이 서명하며 파룬궁수련자의 박해 반대를 지지했다. 루이스는 현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며 수련자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그가 파룬궁의 모든 진상 정보와 미국 하원이 ‘파룬궁 보호법’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고 파룬궁수련자의 노력과 헌신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는 감탄하며 말했다. “미국이 작년에 이미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고 당연히 지지해야 합니다!”

프랑스 파리 13구는 아시아계 커뮤니티로, 그곳의 이탈리아 광장 주변에는 대형 상업 센터가 있어 많은 주민이 쇼핑하러 오며 매우 북적이고 번화하다. 6월 6일 토요일, 파룬궁수련자들은 파리 13구 이탈리아 광장에서 파룬궁 소개, 연공, 진상 알리기 및 서명 운동을 개최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수련 원칙을 소개하고, 중국공산당(중공)이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가하는 잔혹한 박해와 장기적출 만행을 폭로했다. 진상을 들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소감을 전하며, 다투어 박해 반대 서명란에 서명해 파룬궁수련자들의 행동을 지지했다. 일부 주민은 현장에서 공법을 배운 후 편

안함과 평온함을 느꼈으며 파룬궁 수련 대열에 합류할 준비를 했다. 발레리(Valérie)는 진상 부스에 오랫동안 머물며 파룬궁수련자들이 가부좌하고 연공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연공 영상도 촬영했다. 그녀는 말했다. “파룬궁은 정말 매우 평온한 수련법입니다.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서 건강한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진선인’은 마음을 자양할 수 있고, 비폭력적인 실천이며, 편안한 수련으로 신체와 건강에 유익합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는 훌륭한 방법이고 찬사받을 만한 일입니다.”

5월 23일과 5월 30일, 네덜란드 순회 진상팀은 네덜란드 서부 레이던과 남부 스텔트호벤보스에서 파룬궁 정보의 날 행사를 열고 중공의 파룬궁 박해 죄악을 폭로하며 박해 반대 서명을 받았다. 많은 사람이 파룬궁 공범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추고 알아봤으며, 그들은 파룬궁수련자의 불굴의 정신에 감동했고 중공의 잔인함을 규탄했다. 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다이애나는 오래전부터 장기 기증 및 이식 관련 법률과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파룬궁수련자들이 거리에서 중국의 생체 장기적출 행위를 폭로하는 것에 매우 찬사를 보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합니다. 장기 매매 문제에 대해 아직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이식용 장기의 출처가 강요나 매매가 아닌 자발적인 기증에 의한 것임을 보장해야만 장기이식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5월 30일, 영국 메이든헤드의 한 조용한 성 요셉 가톨릭 성당에서 다큐멘터리 ‘국유장기’가 상영됐다. 이 다큐멘터리는 중공이

## 시사평론

### ‘정보의 일방성’, ‘제3자 검증’ 그리고 ‘뉴스 균형’에 관해

글/ 일언(一言)

[명혜망] 오랫동안 많은 사람은 명혜망이 보도하는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 소식을 ‘일방적 진술’, ‘장기적인 비난/지목’이라 불렀고 심지어 적지 않은 이들이 제3자의 조사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과장됐다’는 꼬리표를 달며 외면하고 무시했다.

명혜망과 명혜망을 지지하는 파룬궁수련자들은 도대체 ‘장기적으로 사실 폭로를 견지’하는 것일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비난/지목’하는 것일까?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해 ‘맥락과 입장’이라는 한마디로 결정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쨌든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를 겨냥해 벌이는 집단 학살(‘명예 실추, 경제 파탄, 육체 소멸’)은 나치가 유대인에게 저지른 집단 학살(배척, 착취, 추방, 감금, 살해)과 경중을 가리기 어렵다.

구체적인 사례는 바다처럼 방대하므로 이 글에서는 오직 ‘제3자’, 즉 우리 모두, 특히 언론, 정부, 인권단체의 태도와 방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 ‘일방적 진술’과 ‘균형 보도’에 관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의 학대와 집단 학살(예: 가스실)에 관한 초기 정보는 거의 전부 특정 배경을 가진 일방적 진술에서 나왔다. 당시 서구 주류 사회와 언론(예: 뉴욕타임스)은 이런 초기 보고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태도를 보였다.

류,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벌금에 처한다.

당사자의 행위는 형법 제300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부록11]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5조에 따르면, 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보충 수사가 필요한 경우, 공안 기관에 반송하여 보충 수사를 하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보충 수사는 2회로 제한된다. 이는 검찰원이 사건을 공안 기관에 최대 2회까지 반송하여 보충 수사를 받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파룬궁수련자를 상대로 20여 년간 자행한 고문, 강제 실종, 가족들의 헛된 행방 찾기 등 인권 박해와 파룬궁수련자들의 고통 속에서 생겨난 잔혹한 산업 사슬을 폭로했다. 상영회가 끝난 후, 영국의 인권 운동가, 의사, 현지 주민들이 모여 대부분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주제인 ‘조직적이고 국가가 지원하는 인체 장기 산업’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이 끝났을 때 많은 관객은 중공이 신앙을 짓밟는 소름 끼치는 범죄에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파룬궁수련자들의 불굴의 정신에 감동했다. 관객 풀빈더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에게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인권 유린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것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아 중국 국민을 돕고 중공의 만행을 끝내야 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2026년 6월 2일 발표한 판결에서, **세르비아** 정부가 베오그라드에 본부를 둔 ‘세르비아-중국 우호협회 FDH(Serbian-Chinese Friendship Society FDH)’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세르비아-중국 우호협회 FDH’는 베오그라드의 파룬궁수련자가 창립했으며, 핵심 취지는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박해 진상을 폭로하는 것이다. 협회의 등록 명칭은 파룬궁수련자들이 ‘중공’과 ‘중국’을 구분해 대하고 있으며, 중국과 중국 국민에게는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중공의 정치적 박해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보여준다. 2016년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중국 국가주석이 세르비아를 국빈 방문하는 기간, 세르비아 당국은 당시 공공 안전 유지를 이유로 금지령을 내려 파룬궁수련자가 방문 기간에 향의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했다. 이유는 “반대 시위를 유발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협

회는 처음에 세르비아 헌법재판소에 ‘세르비아-중국 우호협회 F DH 대(對) 세르비아 사건’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그 후 현지 파룬궁수련자는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 본부를 둔 잡지 ‘비터 윈터(Bitter Winter)’는 2026년 6월 5일에 기사를 실어, 전 신장 이공대학 강사이자 파룬궁수련자인 리상홍(李向宏)이 겪은 비참한 사연을 폭로했다. 기사에서는 중국에서 반체제 인사와 신앙 단체에 대한 박해가 형기 만료 출소로 끝나지 않으며, 중공은 연금과 의료 보장을 박탈하는 등 ‘경제적 말살’ 수단을 통해 박해를 감옥 밖으로까지 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리상홍이 겪은 일이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전했다. 중공 당국은 반체제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처럼 ‘조직적으로 생계를 끊는’ 수단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비록 당사자가 형기를 다 마쳤더라도, 국가 기관은 여전히 그들의 과거 업무 경력, 저축, 그리고 미래마저 지워버린다. 많은 파룬궁수련자가 출소 후 취업할 수 없고 보험도 없으며, 수십 년간 납부한 연금마저 물거품이 된 것을 발견한다.

6월 6일, **일본** 각지의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가나자와 하쿠만고쿠 축제’에 참가했다. 이는 가나자와시에서 매년 6월에 개최하는 최대 규모의 전통 축제로, 퍼레이드, 전통 공연, 역사적 인물 재현 등의 행사를 통해 가나자와의 역사와 문화를 선보이며, 매년 수십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관람하러 온다. 축제에서 가장 주목받는 ‘하쿠만고쿠 무용 퍼레이드’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은 노란색 상의와 하얀색 긴 치마를 입고 가나자와의 전통 민요에 맞춰 우아하고 활기찬 춤사위를 선보였

(5) 직권 초과 또는 직권 남용을 통한 증거 수집: 사법 기관 또는 법 집행관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정 직권 범위를 초과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불법 증거 수집 행위에 해당한다.

[부록9]公安 기관 형사 사건 처리 절차 규정

(2012년 12월 13일 공안부령 제127호로 수정 발령, 2020년 7월 20일 공안부령 제159호에 의해 수정)

제227조: 수사 활동 중 발견된 범죄 혐의자의 유죄 또는 무죄를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각종 재물·문서는 봉인·압수해야 한다. 다만 사건과 무관한 재물·문서는 봉인·압수해서는 안 된다. 소지자가 봉인·압수해야 할 재물·문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강제로 봉인·압수할 수 있다.

제228조: 수사 과정에서 재물·문서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압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 감식이나 수색 중 재물·문서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 지휘관이 결정하되, 재물·문서의 가치가 높거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공안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압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록10]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0조 규정: 비밀결사, 사이버 종교 조직을 조직·이용하거나 미신을 이용하여 국가의 법률·행정법규의 시행을 파괴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특히 엄중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과한다. 정황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구

나 절차를 위반하고, 폭력, 협박, 기만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 증거의 정의: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따르면, 고문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혐의자·피고인의 자백, 그리고 폭력·협박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 증언·피해자 진술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협박, 유인, 기만 등의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를 포함한 불법 증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불법 증거 수집의 일반적 유형:

(1) 법정 절차를 위반한 증거 수집: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증인·피해자를 심문하거나, 허가 없이 물적 증거를 수색·압수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증거 수집 행위는 법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획득한 증거는 불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폭력·협박 또는 고문을 통한 자백 강요: 구타, 협박, 이익 제공 또는 기타 불법 수단으로 범죄 혐의자·피고인 또는 증인에게 자백이나 증언을 강요하는 방식은 신체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획득한 증거는 합법성이 없다.

(3) 시민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통한 증거 수집: 허가 없이 시민 주거에 무단 진입하여 수색·재물 압수, 불법 도청·감청 또는 통신 내용 감시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시민의 프라이버시권과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

(4) 증거 위조·변조: 진실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문서·증거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타인을 시켜 위증하게 하는 행위도 불법 증거 수집에 해당한다.

다. 그들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현수막을 높이 들고 관중에게 파룬따파와 ‘진선인’ 이념을 소개했다. 축제 주최 측도 관중에게 파룬궁을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중국의 전통 기공 수련법’이라고 소개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디니는 가족과 함께 퍼레이드를 관람했다. 그녀는 수련자들의 무용이 우아하고 감동적이라고 칭찬하며 말했다. “‘진선인’은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가치관입니다.”

5월 13일은 세계 파룬따파의 날이다. 인도네시아 바탐시 청년 체육국장 줄카르나인(Zulkarnain)은 현지 파룬따파 단체 대표에게 축하장을 수여했다. 당일 말랑시의회 의장 아미시아 라트낭가니 시라두히타(Amithya Ratnanggani Sirraduhita)도 현지 파룬궁수련자에게 축하장을 수여했다.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말레이시아 난마 지역 파룬궁수련자들은 러우포주 구라이에서 9일간의 파룬궁 학습반을 개최했다. 이번 9일 학습반에 참가한 사람 중에는 오랫동안 수련해 온 오래된 수련자도 있었고, 친척과 친구의 수련으로 파룬궁을 알아보러 온 인연 있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 학습 과정에서 자신이 얻은 것과 체득을 공유했고, 진심으로 사부님께 감사를 표했다. 파룬궁 9일 학습반은 매일 2~3시간씩 9일 연속으로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상영하고 무료로 파룬궁 5장 공법을 가르쳤다. 아내의 수련으로 9일 학습반에 참가한 아화(阿華)는 “이번 9일 학습반에 참가해 리홍쯔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듣고 난 후 파룬궁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9일 학습반에서 공법을 배울 때 신체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제1장 공법을 연마한 후 몸이 완전히 펴지는 것을 뚜렷하게 느꼈고 몸이 때

우 편안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5월 28일과 5월 31일, 선원 예술가들의 무대 뒤 이야기를 담은 첫 다큐멘터리 ‘언브로큰’이 **대만** 타이베이와 가오슝에서 두 차례의 귀빈 전용 특별 상영회를 열었다. 타이베이 상영회는 타이베이 광톈 화산 영화관에서, 가오슝 상영회는 시러 영화관에서 열렸으며, 상영회 현장은 만석을 이룬 가운데 정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선원예술단 소속 무용수와 음악가 여러 명이 상영 후 좌담회에 직접 참석해 관객들과 소통했다. 그들은 선원 순회공연에 참여한 경험과 갖은 위협 속에서도 공연을 고집해 온 심경을 전했으며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다. 정치대학 국가발전연구소 겸임교수 리유탄(李酉潭)은 선원 예술가들이 겪이지 않을 수 있는 핵심은 신앙의 힘에 있다고 보았다. “과룬궁은 ‘진선인’을 강조하며, 인(忍)은 일종의 강인한 힘입니다.” 그는 중공의 장기적인 탄압에 직면해서도 바로 이러한 정신이 수련자들이 계속 견지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리유탄은 전체주의 체제가 내부를 진압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외부로 침투하고 있다며, 각종 비방과 압력에 맞서 자유 사회가 더욱 용감하게 나서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월 30일과 31일,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의 일부 과룬궁수련자가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공에 불법적으로 납치된 가족의 석방을 요구했다. 미국에서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저우구이(周瑰)도 집회에서 중공에 어머니 왕유메이와 불법 수감된 모든 과룬궁수련자를 즉시 석방하고 박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2026년 4월 15일 오후 후베이성 우

구류자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해소된 후에는 즉시 피구류자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6조: 공안 기관은 구류된 자에 대해 구류 후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진행해야 한다. 구류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발견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록7]

수배는 도주 중인 범죄 혐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자를 추적·체포하여 사법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사회의 안전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엄중한 형사 강제 조치이다. 그러나 규정을 위반하여 수배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는 심각하다. 무단으로 수배령을 발령하는 것은 피수배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황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수배령 발령은 한 사람을 사회 전체의 추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그 명예와 신망이 극도로 손상되며 정상적인 생활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확실한 증거와 법정 절차 없이 수배령을 발령하는 것은 시민 권리에 대한 무자비한 유린이며, 법률의 존엄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다.

도청, 미행, 촬영 등 수사 수단은 경찰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이러한 수단은 반드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수사 수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시민의 전화를 불법으로 도청하고, 시민의 행방을 미행하며, 시민의 사생활 장면을 촬영하고, 몰래 녹음·도청하는 행위는 시민의 프라이버시권과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부록8] 불법 증거 수집이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률 규정이

자 또는 그의 가족, 이웃 또는 기타 목격자가 서명해야 한다. 피수색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피수색자가 도주 중이고 그의 가족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현장에 없는 경우, 수사관은 조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부록5] 형사 수사 행위가 권한 범위를 초과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첫째, 절차 합법성의 관점에서, 수사 기관은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수색, 압수, 봉인, 재산 동결, 범죄 혐의자 심문 등은 모두 합법적인 수속과 이유가 있어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취한 수사 행위는 월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실질적 내용의 합법성 관점에서, 수사 행위는 법률에서 규정한 상황과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은公安 기관과 검찰원이 범죄 혐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형사 수사를 할 권리가 있지만, 프라이버시권, 통신의 자유와 비밀, 재산권 등을 포함한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수사 행위가 범죄 사실 규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월권을 구성할 수 있다.

[부록6] 『형사소송법』

제85조:公安 기관이 사람을 구류할 때는 반드시 구류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류 후에는 즉시 피구류자를 구치소로 이송하여 구금해야 하며,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국가안보범죄, 테러 활동 범죄에 해당하여 통지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류 후 24시간 이내에 피

한시 장장신구公安분국은 대규모 경찰을 동원해 현지 파룬궁수련자 약 17명을 납치하고 불법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다. 5월 1일, 15일간의 행정구류 기간이 만료되자 경찰은 또 통쭈잉(童淑英), 왕유메이(王友梅), 우구이홍(吳桂紅)을 우한시 제1구치소로 이감해 형사구류로 전환했다. 어떤 서류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가족의 면회도 허락하지 않았다. 통쭈잉의 언니이자 미국 파룬궁수련자인 통쭈전(童淑珍)은 1999년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일으킨 이후 그녀와 여동생이 “장기간 감시를 받았고, 여러 차례 가택수색, 납치 및 수감을 당했습니다”라고 폭로했다. 재차 박해를 받게 되자, 그녀는 여동생의 안전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

6월 5일 저녁, 미국 델라웨어주 뉴어크시에서 8년 만에 열린 ‘뉴어크 나이트(Newark Nite)’가 여름의 서막을 열었다. 파룬궁수련자 부스에 많은 시민이 찾아와 파룬궁 진상을 알아봤고, 어떤 이는 현장에서 공법을 배웠으며, 어떤 이는 가족과 친구에게 배우게 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중국인 8명이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했다. 정신건강 상담사 브리트니 콜린스(Brittany Collins)는 당일 어머니, 아이와 함께 파룬궁 공법을 배웠다. 연공이 끝난 후 그녀는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내면이 평온하다고 말했다. 콜린스는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주 편안하고 내면에 정념이 가득 차며 집중되고 든든한 느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 활력이 넘치긴 했지만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6월 6일, 미국 북캘리포니아 샌리앤드로시 체리 축제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열렸다. 파룬궁수련자로 구성된 연공팀과 요고팀은

다시 한번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됐다. 황금색 연공복을 입은 연공팀의 상서롭고 평온한 공법 시연과 요고팀의 정돈되고 힘찬 공연은 많은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파룬궁수련자 대열이 단상을 지날 때 퍼레이드 진행자 안젤라는 말했다. “와, 정말 기세가 대단합니다! 온통 황금빛이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다가올 때 몸과 마음이 융합되는 평온함이 동반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현지 시의원은 파룬궁수련자들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준다고 극찬하며, ‘진선인’은 오늘날 사회와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선인’ 이런 가치관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캐나다 퀘벡주 셔브룩(Sherbrooke)시에서 열린 파룬따파의 날 경축 행사에서 생명공학 분야에서 일하는 알렉산드라(Alexandra)가 말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이런 가치관을 이해하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과 희망의 참뜻이기 때문입니다.” 5월 23일, 경치가 수려한 락 데 나시옹(Lac des Nations) 호숫가에서 셔브룩 및 주변 지역 파룬궁수련자들이 단체 연공, 공법 소개, 박해 반대 서명받기 등의 방식으로 연례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했다. 이 행사는 많은 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연세가 지긋한 두 여성인 마들렌(Madeleine)과 셀린(Céline)은 박해 반대 서명서에 서명했다. 마들렌이 말했다. “서명의 이유는 아름답고 정당합니다. 이 공법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단지 가부좌만으로도 우리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반대합니다.” 두 노인은 오늘날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 사람들을 어찌할

물품, 주거 또는 장소를 불법으로 수색하는 것은 시민의 프라이버시권 및 주거 안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2) 영장 없는 수색 외에도, 법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색을 진행하는 것 역시 심각한 위법이다. 법정 절차에 따르면, 수색 시에는 피수색자 또는 그의 가족, 이웃 또는 기타 목격자가 현장에 있어야 하며, 여성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여성 직원이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경찰은 법 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3) 권한을 초과한 수색도 불법 수색의 한 형태이다. 각 법 집행 부서 및 법 집행관은 그에 상응하는 권한 범위를 가지며, 이 범위를 초과하여 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 공안 기관 형사 사건 처리 절차 규정

(2012년 12월 13일 공안부령 제127호로 수정 발령, 2020년 7월 20일 공안부령 제159호에 의해 수정)

제223조: 수색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피수색자에게 수색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수색을 집행하는 수사관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225조: 수색을 진행할 때는 피수색자 또는 그의 가족, 이웃 또는 기타 목격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공안 기관은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범죄 혐의자의 유죄 또는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물증, 서증, 시청각 자료 등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수사관은 강제로 수색할 수 있다. 여성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여성 직원이 진행해야 한다.

제226조: 수색 상황은 조서로 작성해야 하며, 수사관과 피수색

경우, 법 집행 과오 책임자의 소속 기관, 직무, 직급 변동 또는 퇴직에 관계없이, 법 집행 과오 책임을 종신 추궁한다.”

[부록2]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46조에 따르면, 시민 또는 단체는 인민경찰의 위법·위규 행위에 대해 인민경찰 기관 또는 검찰원, 행정감찰기관에 신고·고소할 권리가 있다. 신고·고소를 접수한 기관은 즉시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부록3]公安 기관 형사 사건 처리 절차 규정

(2012년 12월 13일 공안부령 제127호로 수정 발령, 2020년 7월 20일 공안부령 제159호 『공안부의 〈公安 기관 형사 사건 처리 절차 규정〉 수정에 관한 결정』에 의해 수정)

제43조:公安 기관은 범죄 혐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 혐의자에게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 사실은 기록에 남겨야 한다.

제44조:범죄 혐의자는 스스로 변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범죄 혐의자가 구금된 경우, 그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이 대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변호 변호사 선임 요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로 요청한 경우,公安 기관은 조서를 작성하고 범죄 혐의자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 [부록4] 불법 수색 행위:

(1) 경찰이 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

바 모르게 하지만, 그녀들은 모두 ‘진선인’이 희망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원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지 이런 분(수련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마들렌이 말했다. 셸린이 이어서 말했다. “이것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필요합니다.”

## 중국소식

### 쿤밍 디젠차오 또 불법 판결, 변호사가 경찰의 수사 및 증거 수집 절차 위법 주장

[명혜지창] 윈난성 쿤밍시의 61세 파룬궁 수련자 디젠차오 씨가 2026년 4월 30일, 쿤밍시 우화구 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위안을 선고받는 등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변호인은 경찰이 감시, 가택수색, 증거 수집 과정에서 여러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디젠차오는 원래 쿤밍 조선제1기계유한공사의 직원이었으며, 쿤밍시 샤오반차오에 거주했다.

#### 심야에 목록을 남기지 않고 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압수

사건은 2025년 7월 15일 오후 10시경에 시작되었다. 당시 사복 경찰관 17~18명과 제복을 입은 특수 경찰관 2명이 신분을 밝히거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디젠차오의 자택과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하여 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디젠차오의 개인 소지품을 압수했는데, 여기에는 수십권의 파룬궁 서적, 컴퓨터, 휴대전화, 그리고 네 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큰 두 개의 현판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률에 따른 압수품 목록은 현장에 남겨지지 않았다.

가족과 친구들은 나중에 방문객들이 쿤밍시 관두구 국가안전여단과 시산구 중자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디젠차오가 “파룬궁 관련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체포되어 관두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해) [부록10]

검찰원의 서류 반송으로 인한 보충 수사가 2회를 초과한 경우 [부록11]

수련생들에게 알림:

경찰 위법의 증거를 최대한 잘 보존하라.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법 집행 기록기를 전 과정 켜 놓도록 요구하라.

귀근결저(歸根結底), 사악한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법제자가 진정으로 법 안에 녹아들어 바른길을 걷는 것이다!

본인의 수준이 한계가 있어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들의 자비로운 지적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부록

[부록1] “죄책자부(罪責自負)”에 관하여

중국 법률 체계에서 책임 인정은 “죄책자부” 원칙을 따른다.

원칙의 정의

죄책자부 원칙, 즉 죄책 개인 원칙 또는 개인 책임 원칙이라고도 하며, 그 핵심 의미는 다음과 같다: 누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가 형사 책임을 진다. 형벌은 오직 범죄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무고한 친족이나 기타 관여하지 않은 자에게 연루시킬 수 없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타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건처리 종신 책임제에 관하여

“『공안 기관 인민경찰 법 집행 과오 책임 추궁 규정』 제138호 제27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억울한 사건이 발생한

당사자에게 관련 권리를 고지하지 않음: (청문권 고지 미이행, 관련 문서 미송달, 당사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고지 미이행, 법률구조 대상 여부 및 변호사 지정 여부 미고지)

시한 초과 불법 심문 조사, 고문을 통한 자백 강요 [부록6]

구류 시 구류장 제시 여부, 구류 후 즉시 구치소 이송 여부(최대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가족 통지 여부, 24시간 이내 심문 진행 여부

불법 구금 기간 연장 및 변칙적 불법 구금. 변칙적 불법 구금이란 은밀한 방식으로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경찰이 법 집행 과정에서 조사를 빌미로 시민을 특정 장소에 장시간 억류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며, 정상적인 식사와 휴식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불법 구금죄에 해당한다.

불법 수배 및 수사 수단 남용 [부록7]

불법 증거 수집 (허가 없이 사유지 주거에 진입하여 수색, 불법 물품 압수)[부록8]

부당한 방법으로 간접 유도; 이익 제공, 사기, 협박 등 부당한 수단으로 자백 획득[부록8]

심문 시 수사관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여부, 2인 미만 여부, 구치소 이송 후 구치소 내에서 진행되었는지 여부

봉인·압수·동결 재산의 절차 합법 여부, 봉인 재산이 사건과 관련 있는지 여부, 목록 작성 여부, 적절한 보관 및 사건과 함께 이송 여부, 해제해야 할 것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여부 [부록9]

법률의 잘못된 적용 (통상적으로 형법 제300조를 이용하여 박

## 불법적인 과잉 구금

법률은 구금 시설에서의 구금 기간이 37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1조는 공안기관이 구금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포 후 3일 이내에 검찰에 재심사 및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및 승인 요청서 제출 기한을 1일에서 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디젠차오는 관두구 구치소에 6개월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되자 이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다.

## 구치소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료 가석방 신청은 거부

2026년 1월 7일, 구치소는 6일간 단식 투쟁을 벌여온 디젠차오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가족에게 통보했지만, 병원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가족은 우화구 법원에 의료 가석방을 신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되었다.

이후 사건은 쿤밍시 우화구 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 검찰청은 경찰의 불법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쿤밍시 우화구 법원에서 계속해서 사건을 기소했다.

## 의뢰인은 항의의 표시로 침묵을 지켰고, 변호사는 사건처리 절차가 불법적이었다고 주장

9개월간 구금 시설에 수감된 후, 그는 2026년 4월 24일 오전 우화구 법원에서 심리를 받았고, 그의 아내는 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디젠차오는 내내 침묵을 지키며 자신을 특정 틀에 가두려는 시도에 저항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디젠차오의 무죄를 주장하며 수사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검찰의 혐의가 근거 없다고 분명히 밝히며, 디젠차오의 무죄를 선언하고 즉시 석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 결론

변호사의 상세한 법적 변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61세의 디젠차오는 세 번째 억울한 투옥에 직면하게 되었다.

앞서 디젠차오는 2004년과 2014년에 신념을 지켰다는 이유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아 윈난성 제1교도소에서 총 8년 6개월을 복역했으며, 그의 아내 뤼장친 역시 2014년에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디젠차오 사건은 단지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명혜망(Minghui.org)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윈난성에서 최소 61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불법적으로 투옥되거나 납치, 괴롭힘을 당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 지역의 인권 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시 정부 투서 전화: 12345

공안부 투서 전화: 12389

6) 일부 수련생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각급 부서가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즉, 고소·고발·투서가 감감무소식이라면 어떻게 하나?

법률 활용은 중생을 구하기 위함이지, 실제로 사람들이 대법제자에게 어떤 공정함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제자가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것이며, 사악함을 폭로하고 저지하며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각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고 있는 것이다. 각급 부서가 직무를 유기하여 경찰의 위법·범죄 행위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각 직무 유기 부서의 책임자에 대해 고소·고발·투서를 전개하여 사악함을 폭로하고 진상을 알리는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누가 위법을 저질렀으면 그에게 책임을 추궁한다. 물론 수련인에게는 적이 없다. 우리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하며, 사악함을 제거하는 것은 중생이 자신의 본성으로 생명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2. 대법제자를 박해하는公安·검찰·법원 관련 사건 처리 인원의 절차 위반 사례 (예시)

유죄 먼저 결정 후 증거 수집; 먼저 체포 후 증거 수색. 입건 절차 위반. 『형사소송법』 제109조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먼저 범죄 사실을 발견한 후에야 입건할 수 있다.

불법 수색 행위 [부록4] [부록5]

해야 한다. 투서 사항이 사실이 아닌 경우, 투서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2) 상급 공안 기관, 동시에 정부 부서, 상급 정부 부서에 고소·고발·투서한다.

3) 동급 검찰원에 신고하는 동시에 각급 검찰원에도 접수하여 사악함을 폭로하고 진상을 알리는 범위를 확대한다.

신고 대상: 공안 기관 인원의 행위가 위법·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될 경우, 동급 검찰원 및 각급 검찰원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검찰원은 국가의 법률 감독 기관으로서 공안 기관의 법 집행 활동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신고 방식: 신고는 서면,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고인은 상세한 신고 내용, 사실적 근거 및 증거 자료를 제공하여 검찰원이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리 절차: 검찰원은 신고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신고 내용에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입건 수사한다. 신고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4)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 고소·고발·투서를 제출한다.

5) 직접 투서 전화로 신고한다:

검찰원 투서 전화: 12309

기율검사감찰 투서 전화: 12388

## 후난성 컴퓨터센터 소장, 불법 투옥되어 10가지 고문 당했다

[명혜지창] 후난성 창사시의 파룬궁 수련자 천양과 그의 아내 차오즈민은 진선인(眞·善·忍)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했다. 천양은 불법적으로 두 차례 투옥되어 총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아내 차오즈민 또한 두 차례 불법적으로 투옥되어 세뇌 센터에 납치되었다. 부부는 금전적 갈취에도 시달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딸 천과위안은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로 인해 가족이 재회하지 못하고 있다.

### 납치 및 갈취 혐의로 또다시 불법적인 4년 징역형을 선고받다

천양은 1992년 후난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 후 후난성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 말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여 진선인의 원칙에 따라 사람을 대했다. 이후 후난성 컴퓨터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2020년 11월, 천양과 그의 아내 차오즈민은 파룬궁 수련자 리즈강의 집에서 파룬궁 서적을 읽던 중 납치되어 불법적으로 구금되었다. 2022년 1월, 천양은 4년 징역형과 1만 5천 위안을 갈취당했고, 차오즈민은 3년 10개월 징역형과 1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천양은 후난성 주저우의 왕룽 교도소에, 차오즈민은 후난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감옥에서 최소 열 가지 고문을 당했고, 이로 인해 몸이 쇠약해졌다

2022년 7월 말부터 2024년 12월 초까지 천양은 후난 왕룽 교도소에 불법적으로 수감되었다. 그는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교도소 당국은 그를 강제로 “전향”(즉,

신념을 포기한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 시키기 위해 구타, 찬물 붓기, 끓는 물에 데우기, 음식 제공 중단, 수면 박탈,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게 하는 별, 화장실 사용금지,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르기, 물에 담가 질식사키기, 심리적 박해 등 최소 10가지 이상의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천양은 쇠약해져서 키가 165cm인데 몸무게가 겨우 40kg밖에 나가지 않았다.

천양이 겪은 고문은 다음과 같다.

#### · 구타

2022년 10월 말, 천양은 교도관들에게 가슴을 발로 차이고 뺨을 맞았다. 심한 흉통이 사흘 동안 지속되자 그는 교도소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열흘여 만에 점차 회복했다.

#### · 냉수를 붓고 끓는 물에 담

2022년 12월, 뽕뽕 얼어붙는 겨울 한복판에서 누군가 컵으로 천양의 목에 찬물을 부었다. 찬물 외에도 천양은 끓는 물이 담긴 플라ستيك병을 몸에 대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 · 급식 미공급

매 끼니 밥 한두 숟가락과 약간의 채소만 받았을 뿐이었다. 온종일 섭취한 음식량은 일반인이 한 끼에 먹는 양보다도 적었다.

#### · 수면 박탈

천양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 취침 시간이 자정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몇 차례는 아예 잠을 자지 못하게 되었고, 또 한 번은 이틀 밤 연속으로 눈을 감지 못하게 강요당하기도 했다.

#### · 화장실 금지

2023년 8월과 9월, 천양은 신념을 버리도록 강요받기 위해 소변을 보지 못하게 제지당했다. 그러나 그는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소변을 썼다.

소·고발·투서한다. 불행히도 불법 구금 시설(구치소, 유치장)에 이송된 경우, 먼저 변호사 선임을 요청한다. 일반 변호사도 가능하며, 그 후 변호사에게 고소를 위임한다. 스스로 절차 위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모른다면, 변호사에게 경찰의 절차 위반 일반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이 하나씩 대조해 보면 된다. 이는 일반 변호사도 할 수 있는 일이다[부록3]. 일반 변호사가 감히 하지 못한다면, 변호사 접견을 통해 가족이 실명 고소·고발·투서에 협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가족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련생 중 익명 신고에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본다.

경찰의 위법 사건처리를 고소하는 데는 여러 경로가 있으며,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사악함을 폭로하고 진상을 알리며 중생을 구하는 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다:

1) 공안 기관의 기율검사감찰부서 및 감독부서에 신고하여 투서 사항을 상세히 진술하고 증거를 제공하며 조사 처리를 기다린다. 이 두 부서는 공안 기관 내부에 설치된 전문 감독 기구로, 공안 기관 및 그 소속 경찰에 대한 투서와 신고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투서 방식: 투서는 서면 또는 구두로 제출할 수 있다. 서면 투서는 투서 사항, 사실적 근거, 투서 요구를 상세히 진술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구두 투서의 경우, 기율검사감찰부서 및 감독부서가 기록을 작성하고 투서인이 확인한다.

처리 절차: 기율검사감찰부서 및 감독부서는 투서를 접수한 후 즉시 조사 확인을 진행한다. 투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규에 따라 관련 인원을 처분하고 처리 결과를 투서인에게 피드백

이렇게 하면 사악한 기세를 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이 경찰의 실질적인 이익을 실제로 건드리기 때문이다. 일단 투서를 접수하면, 상급 관련 부서는 즉시 공안국이나 파출소에 사람을 파견하여 상황을 조사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는 경고, 기과(記過), 강등,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을 포함할 수 있다. 강도, 직권 남용 등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 수사를 개시하고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투서를 받은 경찰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신고한 시민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

대법제자들이 이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러한 경찰들은 반드시 많이 자제하게 될 것이다. 명혜망의 보도를 보면,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박해에 반격하고 경찰의 위법 행위를 고소한 경우, 사악한 자들이 감히 지나치게 박해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과를 알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들이 매우 많다. 게다가 각 현과 시의 국보(國保) 경찰도 몇 명 되지 않는다. 모든 수련생이 능동적으로 박해에 반격하고 신고·투서를 꾸준히 지속한다면, 횡수가 쌓이면서 그들에게 거대한 심리적 압박을 주게 되어, 사악한 자들을 하루하루 불안에 떨게 할 것이다.

만약 모든 경찰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행위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느끼고, 책임을 두려워하여 감히 대법제자를 박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박해가 계속될 수 있겠는가?

## 1. 구체적인 실천 방법 제안

당사자가 신체의 자유가 있는 경우, 직접 실명으로 경찰을 고

### · 장시간 서 있기

2024년 4월 1일, 파룬궁 창시자의 사진을 찢으라는 교도관들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하루 18시간씩 서 있는 처벌을 받았다. 그 결과, 그의 발은 심하게 부어올라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었다.

### · 허벅지 찌르기

2024년 7월 말, 한 교도관이 부러진 플라스틱 옷걸이 봉으로 천양의 허벅지 안쪽을 세게 찔러 피를 흘리게 했다. 교도소 당국은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열흘 이상이 걸렸다.

### · 질식

천양의 머리는 물이 가득 찬 물통에 눌러 거의 질식할 뻔했다.

### · 정신적 박해

신체적 고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22년 8월 8일부터 천양은 파룬궁과 그 창시자를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거의 매일 강제로 시청해야 했다. 석방되기 몇 달 전에는 교도관들이 그에게 선원 공연단 출신들과 다른 사람들이 제작했다고 주장되는 선원과 파룬궁 창시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했다.

## 결론

천양의 경험은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중국공산당이 1999년 7월부터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후, 진선인의 정신을 믿는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이와 비슷하거나 더욱 잔혹한 탄압을 경험했다. 법은 악인을 처벌하고 선을 수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오늘날 중국에서는 인간성과 보편적 가치가 저버려지고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유와 선을 억압하는 나라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

##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산둥성** 라이저우시 70대 파룬궁수련자 왕핑(王平)은 2025년 12월 10일에 라이저우시 시내 거리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거짓말에 오도된 사람의 신고를 받고 팔을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납치돼 이후 국보 경찰에게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그녀는 옌타이 구치소에 감금돼 모함을 당했고, 2026년 5월 28일 라이저우시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3년 반형을 선고받았다.

**톈진(天津)시** 76세 파룬궁수련자 리위상(李玉祥)은 2년 전 우칭 공안에 납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모함을 당했다. 2026년 4월 23일과 5월 12일 그녀는 연이어 두 차례 부당한 재판을 받았고, 이후 우칭구 구치소로 납치돼 감금됐다.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갇혀 있어 가족들은 그녀의 안전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 2024년 7월 5일 아침 8시경 15~16명의 경찰이 그녀의 집으로 들이닥쳐 어떠한 합법적인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강제로 그녀를 거실 소파에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리위상은 우칭구 공안분국 법집행 사건처리 관리센터로 납치돼 불법 심문을 받았다. 당시 리위상은 놀람과 박해로 인해 신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취保候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으로 풀려나 집에 돌아왔다. 거의 2년 후인 2026년 4월 9일 검찰원 직원은 리위상에게 그녀의 사건이 이미 법원으로 넘어갔으니 재판을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후베이성** 셴닝시 원취안구 파룬궁수련자 리쉐홍(李學紅)은 2025년 9월 경찰에 납치됐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장기간 미행과 감시를 당했다. 그 후 그는 인터넷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 사

일부 공안·검찰·법원 관계자들은 어리석게도, 파룬궁을 박해하는 데 있어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으며, 혹은 “윗선”에서 자신들을 책임져 줄 것이라 자만하며, 자신들은 “윗선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악한 당이 대법에 가한 박해는 중국 대지 위에 무수한 억울한 사건들을 만들어냈고, 무수한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들였다. 사악한 당을 따라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늘을 뒤덮는 죄업을 쌓아가고 있으며, 남도 해치고 자신도 해치고 있다.

우리는 정념을 발하여 사악한 요소를 해체하는 동시에, 법률이라는 도구를 단호하게 잘 활용하여 관련 인원이 법을 어기고 집행하는 행위를 즉시 고소·고발·투서해야 한다. 무신론으로 세뇌된 자들은 “선악응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현세의 응보인 소급 조사와 책임 추궁, 즉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박해에 가담한 자들은 비로소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된다. 관직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이익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수련생이 납치를 당한 경우, 우선 중공 관계자들이 파룬궁을 박해하면 출세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환상을 끊어버려야 한다. 자비롭게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데 공식 문건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찰에게 법적 책임 인정 원칙인 죄책자부(罪責自負, 각자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짐) 및 사건 종신 책임제를 명확히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부록1] 만류를 듣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경찰의 절차 위반에 대한 고소 절차를 시작하여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부록2]

이제 아들도 달라져서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무척 존경하며 제가 수련하고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지지해 줍니다. 저는 두 손녀에게 자주 ‘과룬따과하오, 쩌싼런하오’를 외우게 가르치고 온 가족이 화목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을 겪어도 사람을 구하려는 제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집에 피운 ‘작은 꽃’(진상 자료 제작소)은 줄곧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대면해 진상을 알리는 수련생에 비하면 저는 한참 부족합니다. 이번 생에 대법을 수련할 수 있어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세 가지 일을 잘 해내고 사람을 더 많이 구하며 서약을 지키고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 경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글 /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20여 년 이래, 과룬궁 수련생들은 괴롭힘, 납치, 불법 가택수색, 구금, 억류, 판결 등의 박해를 받아왔다. 대법제자들은 정념(正念)으로 진상을 알리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공안·검찰·법원 관계자들의 양심과 선한 마음을 일깨우며, 수련인으로서 자비로운 모습으로 천지를 감동시켜 왔다. 이미 많은 수의 박해에 가담했던 중공 기관 종사자들이 각성하고 있지만, 일부 공안·검찰·법원 관계자들은 여전히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으며, 일부 경찰은 심지어 태도가 불량하고 박해 수단이 잔인하기까지 하다.

이버 감시 경찰에게 발각돼 다시 불법적으로 갇혔다. 2026년 4월 상순, 그는 셴닝시 셴안구 초급법원에서 비밀리에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가족과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재판 상황은 여전히 조사 중이다. 리쉐훙은 50여 세로, 네 차례 불법적으로 갇혔고, 두 차례 세뇌반에 갇혀 박해를 받았으며, 1년간 불법적으로 강제노동 처분을 받아 심신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과룬궁수련자 자오쯔쥘(趙子軍)이 장자커우시 와이둥야오쯔진 파출소에 납치됐다. 핑계는 2020년 1년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로 수감되지 않았는데 이제 수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오쯔쥘은 현재 전염병 병원의 감시 병원에 갇혀 있다. 자오쯔쥘은 2019년 4월 25일 장자커우시 차오시구 와이둥야오쯔진에서 과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와이둥야오쯔진 파출소에 납치됐다. 2019년 6월 7일 소위 취보호심 형식으로 풀려나 거주지 감시를 받았다. 2020년 5월 27일 자오쯔쥘은 차오시 법원에 불법 소환돼 이른바 ‘기소장’과 양형 건의서를 받았으며, 이후 7월 17일 자오쯔쥘은 차오시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 수련교류

### 알고 보니 법공부를 방해한 것은 업력으로 구성된 ‘가짜 나’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명혜망 라디오 방송에서 수련생들이 법공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연을 자주 듣는데 저 역시 법공부가 어려운 사람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저는 수련한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27년 동안 저의 법공부는 정말 고난이었습니다. 법공부만 하면 졸리고 마음이 답답하며 몸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법을 읽으려 했습니다. 앉아서 읽거나 무릎 꿇고 읽거나 서서 읽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법공부의 중요성을 깊이 알고 있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법 읽기를 견지하려 했습니다. 법공부를 해도 법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법을 들으면 잠이 쏟아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대법을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마음속에 담겼습니다. 저도 ‘전법륜(轉法輪)’을 한번 외운 적이 있는데 몇 년의 시간을 들이고도 법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시 ‘전법륜’을 외우기 시작해 제1강을 절반쯤 외우다가 그만뒀습니다. 입으로는 아주 익숙하게 외우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이토록 법공부가 어려울까요? 저는 안으로 찾으며 제 법공부를 교란하는 사악한 영을 제거하기 위해 정념을 발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부님, 저는 진정으로 수련하고 있으니 법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사부

것들이 고개를 내밀기만 하면 당장 죽어버리게 하겠다.’ 연공할 때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게 교란하는 잡념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 근본 집착을 수련해 없애다

며칠 전 ‘명혜주간’에서 근본 집착심을 없애는 문제에 대한 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근본 집착에 대해 매우 모호하게 여겨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가 진심으로 수련하려는 것을 보시고 수련생의 교류 글을 통해 저를 일깨워주시며 제 근본 집착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 인간 세상에서 고생하기 싫어하는 마음, 공덕을 쌓기 위해 진상을 알리는 마음, 본체(本體)를 변화시켜 젊어지기 위해 연공하는 마음, 시련을 피하기 위해 안으로 찾고 심성을 닦는 마음 등이었습니다. 어쩐지 늘 자비심이 수련돼 나오지 않고 완전히 남을 위하는 마음을 해내지 못하더라니, 이렇게 이기적인 근본 집착을 품고서 어떻게 수련인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근본 집착인 ‘사(私)’를 깨달았을 때, 어느 수련생의 말처럼 ‘마음속에 창문이 열린 듯 탁 트인’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이 맑고 몸이 투명해진 느낌이 들었고 몸이 아주 가볍고 편안했으며 에너지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사부님께서 단번에 근본 집착을 거둬가신 것 같았고, 사부님께서 제게 자비심의 오묘함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요즘 들어, 특히 원고를 쓰는 며칠 동안 저는 매사에 남을 배려할 수 있게 됐고 남을 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며 수련이 쉬워졌습니다. 부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다 가상이라며 인정하지 않았고 할 일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한 발짝도 땄 수 없었고 밤이 되자 여전히 아파 밥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무거운 망치로 저를 일깨워주시는 게 아니었을까요? 사부님께서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 방식을 이용해 거듭 일깨워주셨는데 저는 매번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아무리 아파도 대법의 초범성을 보여주어 대법에 먹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어설 수만 있다면 연공을 하리라 마음먹고 밤에 3시간 동안 동공(動功)을 하며 끊임 없이 정념을 발하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천천히 땅을 딛고 걸을 수 있었고 통증도 가라앉았습니다. 사부님께서 또 제자를 대신해 감당해주신 것입니다. 아침을 먹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대량으로 법공부하고 법을 외웠으며 각지 설법을 읽고 연공하며 정념을 발했습니다. 법에 비추어 무조건 안으로 찾으며 진정으로 법에 입각해 자신을 수련했습니다.

가장 먼저 휴대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일사일념(一思一念)에서 법에 부합하지 않는 생각은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원망심, 질투심, 과시심, 환희심, 쟁투심, 추구심, 지적받기 싫어하는 마음, 남을 알아보는 마음, 안일심, 남보다 수련을 잘한다는 마음, 자아를 실증하려는 마음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情)에서 파생된 집착심입니다. 예전에는 늘 뿌리째 뽑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 강한 정념을 발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순수한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정은 내가 아니다! 그

님께서도 제가 어떻게 해야 법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일깨워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열린 상태로 수련해서 수련 중에 겪는 작은 고비와 시련은 스스로 넘겼고 큰 고비와 시련을 겪을 때는 사부님께서 미리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법공부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사부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법공부를 방해하는 이 생명이 도대체 누구이며 저와 어떤 인연 관계인지 생사를 다투는 원수인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하는지 사부님께서 선해(善解)해 주셔도 안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 수련생이 자동차에 치였는데 아주 심하게 부딪혔음에도 수련생의 몸은 무사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당신은 한번 부딪혀 당신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여기지 말라. 당신은 정말로 하나의 당신이 죽어버렸는데, 업력으로 구성된 당신이다.”(미국법회 설법-뉴욕좌담회 설법) 저는 번쩍 정신이 들며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후천적인 업력으로 구성된 ‘나’가 저의 법공부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당하게 제 법공부를 교란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 역시 ‘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그것들이 ‘가짜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찌면 이토록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가짜 나’를 식별해 낸 이후 저는 명혜망 라디오에서 말한 대로 장시간 정념을 발했는데 대략 세 차례에 나눠 6~7시간을 발했습니다. 이후에도 몇 시간 동안 정념을 발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정상적으로 법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법공부를 할 때 법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법공부를 하면 마음이 아주 가볍고 편안한 느낌이 들며 마침내 법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느낌을 찾았습니다. 법을 들을 때도 더 이상 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진실한 경험입니다.

## 원망심을 닦아버린 체험

글/ 지린(吉林)성 대법제자

[명혜망] 내 수련의 길에는 줄곧 원망심이라는 아주 강한 집착심이 따라다녔다. 나는 그것을 의식했지만 끝내 철저히 제거하지 못했고 서서히 자라나게 해 갈수록 커지게 했다.

10살 때 집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고 이후 내 인생은 다른 궤도로 접어들었다. 당연히 이 길은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었기에 뜻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일이 원망의 도화선이 됐다. 나는 예전에 늘 운명이 내게 불공평하다고 탄식하며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원망심이 불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조금씩 쌓여온 것임을 깨달았다. 이는 아주 강력한 이기적인 사심이자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며 억울해하다가 서서히 원망으로 변한 것이다. 사실 이런 집착심은 모두 연대 관계가 있어서 이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 마음을 키우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정말 자신에게 더욱 엄격하게 요구해 일사일념이 법에 부합하는지 가늠해야 한다. 조금만 주의하지 않아도 그것을 갈수록 크게 키워 마지

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사실 9살 아이가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제가 이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 20분쯤 지나자 가슴 통증은 가셨지만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장사하다가 돈을 많이 잃었고 42세에 심한 뇌출혈로 입원해 치료비를 많이 썼으며, 그 후로 기억을 잃고 혼자 생활하지 못한 채 매일 욕설을 퍼부으며 10년 넘게 앓았습니다. 1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저 혼자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익을 얻었다가 잃는 뼈를 깎는 아픔도 겪었는데 이제는 두 손녀 등 하교까지 책임져야 하고 집안 대소사를 모두 혼자 처리해야 했습니다. 온갖 억울함이 밀려와 울고 또 울며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수련인의 상태를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이것이 원망심과 억울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이 좋지 않은 물질을 알아차리기만 했을 뿐 중시하지 않았고 법에서 핑계를 찾았습니다. ‘수련이 잘된 부분은 사부님께서 떼어놓으셨고 사람 마음이 남아있는 건 당연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약 한 달 전, 저는 평지에서 넘어졌는데 아프지도 않았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수련에는 우연이 없으니 분명 제 수련 상태와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자리에서 또 심하게 넘어져 왼쪽 발목을 삐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면서 운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해 침대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통증이 더 심해졌고 계속 뻗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에 구역질까지 났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아픈데 골절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박 마귀에게 조종당해 꿈으려야 꿈을 수 없으니 그 역시 무척 불쌍하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정념도 나와서 진심으로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나는 수련인인데 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됐어. 아는 척하지 않은 건 내 잘못이야. 평소에 늘 잔소리하고 원망하며 네 기분을 헤아리지 못해 미안해. 꼭 고칠게. 하지만 내가 사과했다고 해서 네가 옳다는 건 아니야. 너의 그 잘못도 반드시 고쳐야 해. 우리 둘 다 고쳐야 해.” 방금 한 행동을 아들도 몹시 후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과 아주 평온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진요지’에 있는 경문 두 편을 보여줬습니다. 다 읽고 나서 아들은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수련을 진지하게 대했습니다. 우선 아들에 대한 원망심을 닦아 없었습니다. 원망심은 내가 아니니 그것을 닦아 제거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대법의 제도를 기다리며 하늘만큼 큰 담력으로 내려온 중생으로 여기며 아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챙겨줬습니다.

### 사부님의 세 차례 일깨움

최근 2년간 ‘명혜주간’에 원망심을 없애는 글이 자주 실렸고 저는 매호 주간지를 꼼꼼히 읽으며 제게 원망심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13 직전 어느 날 오후, 9살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하면서 작은 라디오를 듣길래 제가 라디오를 치워버렸습니다. 손녀는 안 된다며 팔짝팔짝 뛰고 소리치며 벽에 머리라도 박을 기세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다시 돌려줬습니다.

방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주먹으

막에는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나는 가끔 마성을 발산하며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는데 원망심과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마음이 이미 아주 강렬해졌음을 인식했고 반드시 그것을 철저히 제거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불만스럽고 원망심이 올라오려 할 때면 정념을 강화해 그것을 반대하고 배척하며 생각했다. ‘나는 나 자신을 바꿀 것이다. 너는 내 공간장에서 악을 행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나는 대법제자이고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사람이다. 네가 그 보잘것없는 힘으로 나를 교란하려 하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꿔다. 꿈속에서 나는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직선으로 길 맞은편으로 가려 했다. 나와 멀지 않은 곳에 50대 정도 되는 남자가 비스듬히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비스듬히 건다 보니 길 위에 머무는 시간도 길고 거리도 멀었다. 이때 장난감 자동차만 한 차가 그를 향해 달려오더니 그를 치어 쓰러뜨렸고 그는 머리가 깨져 피를 흘렸다. 내가 길 맞은편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다 너 때문이야’라고 말했다. 나 때문에 자신이 치였다는 뜻이었다. 잠에서 깬 후 나는 내가 원망심을 제거하는 데 공을 들였기에 그것이 폭로됐고 우주의 법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아 그것이 다친 것임을 깨달았다. 죽기 직전인데도 여전히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꿈속에서 내가 걸은 길은 바른길이었고 그가 걸은 길은 삿된 길이었다. 나는 그것과 결별했고 매번 원망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강제로 떠넘긴 것임을 똑똑히 인식했다. 이 부패된 물질은 내가 키워서 이미 50대 정도의 사람 형상만큼 커져 있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

했다. 나를 도와 이 부패된 물질을 철저히 해체해 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자신이 때때로 정말 법의 기준과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고 때로는 스스로 가짜로 수련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며 일을 걸치레로 하고 때로는 속으로 원치 않으면서 겉으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음을 반성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부딪혔을 때 최대한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목적이 있는 참음이었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수련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변화와 제고가 아니었다. 진정으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동료의 불공평한 대우에 직면했을 때 속으로 '나는 높은 자세를 유지해야 해.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사실 억지로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들과 따지지 않은 것은 그녀들과 얽혀 내 층차가 낮아지기를 원치 않아서였다. 이런 일들을 내 제고의 기회로 삼지 않았는데 사실 동료들의 일부 언행은 정말 내 집착심을 겨냥해 온 것이었다. 나는 제고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료에게 불만을 품었다. 내 사람 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대의명분이 있는 척하며 그녀들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 고상해 보였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 자신도 내가 한심하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덕을 중시하라고 하셨고 우리의 그 마음을 착실히 수련하라고 하셨다. 겉으로 아무리 잘해도 모두 가짜이며 진정으로 자신의 이 마음을 바꾸고 이 마음에 공을 들이는 것만이 참된 수련이다. 자신을 바꾸면 주변 환경도 변하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고 나타나 갈수록

을 독하게 먹고 끝까지 내려놓아 모든 것을 사부님께 맡긴 채 대법제자가 해야 할 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몸과 마음을 얽매던 족쇄도 사라지며 한없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 다시 집착을 닦아 없애다

비록 좋지 않은 마음을 일부 닦아 없애긴 했지만 완전히 없애지 못해 뿌리를 뽑지는 못했고 특히 아들에 대한 원망심이 아주 컸습니다. 한번은 아들이 하도 속을 썩여 한 달 동안 아는 척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중생을 구하기 위해 저는 선연(善緣)을 널리 맺었고 아무리 큰 손해를 봐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다. 하지만 아들에게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다. 아들이 말을 걸면 짜증이 났고 아들의 크고 작은 일이나 의식주 등 제 개인적인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잔소리를 퍼부었으며 때로는 무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성격이 내성적이라 대꾸하지 않았고, 이는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짜 나'를 더욱 키웠습다. 게다가 아들은 딸과 엄마에게도 인내심이 없어 귀찮으면 그냥 귀찮은 티를 냈고, 가족에게 투명스럽게 대하는 것은 후유증이 없으며 어차피 진짜 화낸 것도 아니라는 핑계를 댔습다.

한번은 아들이 600위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더니 마성(魔性)이 폭발해 휴대폰을 내던지고 책상을 부숩습다. 제가 한 달 동안 아는 척도 안 해서 자기가 도박에 빠졌으니 다 제 탓이라며 맨날 자기만 원망한다고 따졌습다. 아들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자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다. 스스로 반성했습다. '내가 그를 상대하지 않은 것은 악을 악으로 갚은 게 아닌가? 이것이 바로 중공 악당 문화가 아닌가? 그는 속인이고 자제력도 약한데 도

정한 뒤 최대한 온화하게 아들과 도박의 폐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듣고 나서 도박을 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고 아들은 계속 도박을 하며 거듭 다짐만 하더니 4~5년 동안 수백만 위안을 잃었습니다.

저는 사부님 법상 앞에서 울면서 사부님께 아들을 구해주십사 간청했습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전법륜(轉法輪)’을 한 번 읽으라고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면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오빠 부부, 여동생에게 아들을 타이르게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안으로 찾기도 했지만 아들이 빌린 돈이 고리대금이라 갚지 못하면 상대방이 SNS에 퍼뜨리거나 아이를 납치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두려워했고 저 역시 정에 이끌려 아들의 고리대금 대부분을 갚아줬습니다.

수련생도 이 문제에 관해 여러 번 저와 교류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가 죄를 짓고 업을 짓도록 방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수련생의 인식에 매우 동감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빈틈이 있어서 구세력에게 꼬투리를 잡혀 끝없이 교란당하고 박해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구세력은 심지어 아들이 자살하게 만들어 제 수련 의지를 꺾으려 했지만, 저는 사악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정념을 굳건히 하며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제가 정성껏 지켜온 풍요로운 생활, 화목한 가정,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는 좋은 평판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충격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아들 가족에 대한 걱정과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추구와 동경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마음

악화될 수 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나는 예전에 ‘전법륜(轉法輪)’에서 사부님께서 하신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한(羅漢) 그 층차에 도달하면 어떤 일과 마주쳐도 다 마음에 두지 않고, 속인 중의 모든 일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으며, 언제나 싱글벙글하면서, 아무리 큰 손해를 보아도 싱글벙글하며 개의치 않는다”라는 이 단락의 법을 배울 때 나는 무슨 일에 부딪히든 모두 싱글벙글해야겠다고 늘 생각했다. 하지만 거의 매번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부딪힐 때마다 해내지 못했다. 최근 이 부분을 읽다가 비로소 깨달았는데 사부님께서 앞에서 “어떤 일과 마주쳐도 다 마음에 두지 않고”(‘전법륜’)라고 하셨다. ‘마음에 두지 않고’라는 부분을 보고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알고 보니 싱글벙글하는 것의 전제는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었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층차의 표현이자 경지의 체현이었다. 이 층차에 도달해야만 무슨 일에 부딪혀도 싱글벙글하며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나는 자신이 왜 일에 부딪혔을 때 여유롭고 평온하기 어려웠는지 알게 됐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사람 마음을 겨냥해 온 것인데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얽매어 있어 제고해 올라오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사에 태연하고 싱글벙글하지 못한 것이다. 일에 부딪혀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지의 승화이며 수련 중의 일사일념이 모두 법 위에 있어야 비로소 조금씩 체득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자 비범함이다. 겉으로 억지로 참고 억지로 하는 것은 수련이 아니다. 수련의 길에서 일에 부딪혔을 때의 내 모습을 돌아켜보니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다.

사부님께서서는 자비로우시어 거대한 감당으로 제자들에게 거듭 시간을 연장해 주고 계신다. 나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 수련을 중시하려 한다. 오직 자신을 잘 수련해야만 세 가지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중생을 구할 수 있다! 자신을 착실히 수련하는 것을 반드시 중시해야 하며 예전에 잘했으니 이제는 느슨해져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이 서로 다른 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다르며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더욱 엄격해진다. 미지근한 물속의 개구리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가서는 안 된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절대로 자신에게 빠져서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내 층차가 유한하니 법에 부합하지 않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

## 집착심을 찾자 어머니 발의 부기가 빠지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수련은 엄숙합니다. 최근 저에게 일어난 한 가지 일은 “수련인이 안에서 찾는 이것은 법보(法寶)이다.”(각지 설법9-2009년 워싱턴DC 국제법회 설법)라는 것을 진실로 증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73세로 1997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입니다. 어머니는 눈이 줄곧 소업(消業) 상태에 있어 사물을 선명하게 보지 못했고 길에서 움푹 패고 평평하지 않은 곳도 잘 보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정념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사부님이 계시고 법이 있으니 절대 구세력의 안배를 인정하지 않으며, 낙담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이 고비를 넘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를 하며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뒤 제 몸의 병업 가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들 일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속을 썩이지 않았고 선량하고 의젓했으며 성적도 최상위권이라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집을 수리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제 속을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체면을 중시합니다. 저는 그가 무엇에 홀려 실수한 것이라 생각했고 이번 일로 교훈을 얻었을 거라 여겼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취소하고 아들에 대한 정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순리에 맡겼고 아들의 인생길은 사부님께서 안배하시는 것이라 그 누구도 좌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돈을 함부로 쓰는 습관을 고쳤기에 이 고비가 이렇게 지나간 줄 알았습니다.

## 다시 찾아온 시련

2020년 5월 저는 며느리와 통화하다가 며느리가 아들과 싸우고 친정에 간 지 일주일이나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원인은 아들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말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곧장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물어보니 아들은 또 30~40만 위안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뛰어 큰소리로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태도는 역효과만 낼 뿐임을 알았기에 잠시 진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시련

2019년 3월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지 며칠 안 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2만 위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엇에 쓰려는지 물었고 아들은 인터넷 도박으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39만 위안(약 9천만 원)의 물건 대금이 네 쪽에 있지 않냐고 물었고 아들은 다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라 머리가 무겁고 다리에 힘이 풀렸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사부님을 떠올리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마침 병업 고비를 겪고 있었는데 기침이 심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쉴 새 없이 기침하고 물을 마셔대서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허리 오른쪽 윗부분에 속인들이 말하는 대상포진 가상이 나타났는데 작은 붉은 물집이 생기더니 뺏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남편까지 돌봐야 했고 장사도 제가 다 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이 일에 관해 저는 아들에 대한 정(情)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장사 규모를 키워 앞으로 아들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 돈은 모두 사부님께서 주신 대법 자원인데 평소 저는 씹씹이가 해피서 살 것도 사고 안 사도 될 것까지 사는 바람에 구세력에게 꼬투리를 잡히고 빈틈을 타게 해 시련을 만들었고, 저를 무자비하게 박해해 파멸시키려 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습니다. 올해 3월 채소를 사러 거리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번 넘어지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자신이 수련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부님께 자신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등에 채소와 달걀이 들어있는 등짐을 지고 있었기에 무릎이 먼저 땅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넘어진 곳에서 천천히 일어나 고통을 참으며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등짐 속 달걀도 단 하나만 깨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후 가족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도 소엽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법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무릎을 다쳤고 왼쪽 다리도 몹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 양쪽 무릎은 피부가 벗겨져 동전만 한 피딱지가 앉았고 왼쪽 발등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머니가 소엽 중이시라 며칠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고 그저 어머니에게 사부님의 설법을 진지하게 듣고 저녁에 포륜(抱輪)을 한 시간 더 연마하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이후에야 어머니가 사지에 힘이 없다고 느껴 저녁에 연공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 아침 연공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어머니의 발은 여전히 높게 부어 있었고 배꼽에서도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 배꼽이 붉게 부어올랐고 소량의 하얀 것이 섞인 액체도 약간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걸을 때도 기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또 서둘러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어머니를 우리집으로 모셔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집에 보름 가까이 머물렀지만 수련 상태에는 뜻

밖에도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발등은 여전히 부어있었습니다. 배꼽도 붉게 부어 액체가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급해져 말투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병엽 고비를 겪고 계시는데 반드시 찾지 못한 집착심이 있으실 거예요. 집착심을 찾지 못하시면 심성이 어떻게 제고되겠어요? 심성이 제고되지 못하면 신체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리 해도 자신의 집착심을 찾지 못하셨고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늘 집착심을 찾으라고 강요하고, 집착심이 없는데도 인정하라고 몰아붙인다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저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을 찾지 못하시겠다면 사부님과 법을 굳게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생각만 확고히 하시고, 일체의 사람 마음과 바르지 않은 생각을 제거하며, 사부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 기대어 고비를 넘기세요.”

바로 어젯밤, 어머니와 함께 포룬을 할 때 어머니가 견지하는 모습을 보며 이 기간을 돌이켜보니, 저는 늘 어머니가 집착심을 찾도록 돕고 있었고, 어머니에게 어떤 어떤 집착이 있다고 지적해 주었지만 어머니는 일일이 부인하셨으며, 저는 어머니가 여전히 집착을 감추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의 소업이 심각한 것을 보고 저도 어머니에게 사부님과 법을 믿고 수련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속인의 길을 걸을 것인지 여쭙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히 수련의 길을 가야지!”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부님, 제자가 비록 둔해서 많은 법리를 깨닫지 못하지만 저는 생사를 내려놓고 대법 수련을 끝까지 굳게 견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는 갑자기 알게 되었습니다. 원

수련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많은 번거로운 일들은 모두 자신의 마음이 불러온 교란이었습니다. 사람의 사유가 바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전처럼 제 생각을 방임하지 않고, 머릿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면 즉시 그것을 부정하며 어떤 마음이 이런 잡념을 불러일으켰는지 살펴본 후 배척합니다. 고난이 닦쳐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고난이 정말 닦쳐온다 해도 담담하게 직면하며, 먼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모든 고난을 자신이 승화하는 계단으로 삼고 수련이 제고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 기간의 수련을 거치면서 제 마음은 많이 평온해졌고, 법공부도 비교적 마음에 와닿았으며, 연공할 때 때로는 파룬이 회전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약간의 얕은 인식입니다.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련 속에서 근본 집착을 수련해 없애다

글/ 산동성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7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로 올해 58세입니다. 법을 얻은 후 사부님께서 제 몸을 정확해 주셔서 병 없이 몸이 가뿐해졌고, 사람이 사는 의미가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됐으며, 저를 사심 없이 남을 위하는 생명으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래에 최근 몇 년간의 수련 체험을 적어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법에 맞지

려놓게 됐습니다. 그 후 구치소에 갈 때면 그곳에 차가 많은 적든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마음은 다른 수련생들이라면 아마 진작에 닦아버렸을 텐데, 저는 이제야 제거한 것입니다.

내면의 수양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위층 집 에어컨에서 흘러내린 물이 제 침실 밖 창틀에 똑똑 떨어져서, 침실 안 창틀 아래 벽지가 크게 한 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를 발견하고 이웃을 불러 우리집을 보게 했는데, 그녀는 미안함을 표하며 최대한 빨리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남자 주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게 먼저 “죄송합니다. 이미 에어컨 수리 기사를 불렀고 물건을 사러 갔으니, 2~3일만 더 지나면 고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5~6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웃을 원망하지 않고 제게 아직 바로잡아야 할 어떤 마음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나태해져서 계속 졸음이 오는 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으며, 잠들기 전에 늘 잠깐씩 휴대폰을 보았음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수련을 느슨히 했던 것입니다. ‘안을 수련하여 밖을 안정시키다(修內而安外)’(정진요지). 저는 즉시 정념을 발해 제 수련을 교란하는 모든 좋지 않은 물질을 제거했고, 행동에서도 자신을 바로잡아 잠들기 전에는 더 이상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더 지나자 물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손녀를 데리고 노는 위층 이웃을 보았는데, 그녀는 급히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물 안 새죠?” 제가 “안 새요”라고 하자 그녀는 “다 고쳤어요”라고 말했고, 저는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안을 잘 닦았더니 물이 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래 제가 틀렸던 것입니다. 저는 줄곧 눈을 어머니에게 고정하고 집착을 찾게 하며 노력하여 정진하라고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병업 고비를 넘길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우리집으로 모셔와 함께 보냈는데, 표면적으로는 제가 어머니가 병업 고비를 넘기도록 돕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정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리집에 오시면 저는 한동안 정진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바로 해이해져 밤에 또 휴대폰을 갖고 놀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병업을 초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 줄곧 정진할 수 있었다면 어머니의 병업도 이렇게 긴 시간을 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를 돕는 동시에 뜻밖에도 자아를 실증하려는 사람 마음까지 생겨나 저 자신이 수련을 제법 잘하고 있다고 여겼으니, 이것은 하늘의 공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修在己, 功在師父)”(전법륜), 이 모든 것은 다 사부님의 자비이고 사부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제자가 잘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제게 있었고, 제가 관념을 바꿔야 하는 것이었으며, 어머니가 제가 수련하고 제고하도록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안으로 찾는 동시에, 이날 오전 11시가 넘어 어머니가 침실에서 나와 저를 이끌며 자신의 집착심을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사위(제 남편)에 대해 줄곧 원망심이 있었는데 아주 깊이 묻혀 있어서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늘 그를 위해 베풀기만 하고 상응하는 보답을 받지 못해 역시 원망하는 마

음이 생겼고, 이익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집착심을 찾았다고 하시며 정념을 발해 그것들을 제거하기 시작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집착을 찾은 이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대법의 신기함을 체험했습니다. 수련인이 어떤 일에 부딪히든 모두 안으로 찾으시면 일은 매우 빨리 전환이 일어납니다. 저도 어머니를 위해 기뻐합니다.

점심을 먹은 이후 저와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무심코 어머니의 왼쪽 발이 뜻밖에도 조금도 붓지 않고 원래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전 법공부를 할 때만 해도 발이 통통하게 부어 주름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발에 부기가 가라앉았고 피부에도 주름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발이 붓지 않으셨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점심을 먹고 나니 기운이 없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고 걸을 때 힘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집착심을 찾으신 이후 불과 한 시간 만에 발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고, 이것은 어머니가 대법을 굳게 수련하려는 마음을 더욱 확고하게 했습니다. 제가 원고를 수련생에게 넘겨줄 즈음에는 어머니의 배꼽도 더는 붓지 않고 진물이 흘러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를 보호해 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변의 노년 수련생들이 병업 고비를 넘기며 몹시 고생하고 힘들어하며 심지어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이 글을 써서 수련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면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그것이 진정한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쁜 관념과 업력이 한 짓임을 부정하고, 정념을 발해 제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저를 위해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제 일은 최대한 스스로 했으며, 할 수 없는 일은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일하러 온 사람에게 진상을 알릴 수도 있었고, 최대한 아들을 곤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제 변화를 느끼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변하셨네요.”

예전에 제가 수련생의 컴퓨터 설치를 도와줄 때, 어떤 컴퓨터는 너무 오래됐고 HP나 델 같은 일반적인 브랜드도 아니어서 설치하기가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자주 PE(윈도우 설치나 복구할 때 쓰는 미니 윈도우)조차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전의 저는 수련생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컴퓨터를 가져가게 하고 설치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일단 제 손에 들어온 이상 모두 방법을 생각해 설치해줍니다. 때로는 설치하는 데 10여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중간에 자료를 찾아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수련생의 경제 상황을 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줄곧 각별히 주의하며 제 차를 몰고 민감한 장소에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은 변호사를 선임해 구치소에 있는 수련생을 접견해야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 수련생을 돕는 것은 법에 부합하는 일이고, 나 자신의 안위만 고려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용기를 내어 구치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보니 외지와 현지의 차들이 아주 많은 것을 발견했고 제 이 두려움도 내

로 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던가?’ 하고 의식하게 됐습니다. 아들에게 무척 미안했습니다. 또한 깨닫지 못하는 저를 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일깨워주신 사부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제 언행을 반성하기 시작했고, 제가 때로는 평범한 사람만도 못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법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저는 진수제자(眞修弟子)가 되겠습니다. 모든 집착과 사람 마음을 내려놓고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눈물이 견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사부님께 너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또한 ‘만약 내가 이 의존심과 안일심 등을 조금 더 일찍 발견하고, 일에 부딪혔을 때 법으로 가늠했다면 구세력이 그렇게 많은 빈틈을 타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남편의 고비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가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수동적으로 수련해 구세력에게 늘 덜미를 잡히고 빈틈을 타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능동적으로 집착을 제거하고 주동적으로 수련할 것이다.’ 저는 이 몇 마디를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저는 법공부를 하고 제 사상의 근원을 파헤쳐 보면서, 모든 집착심이 사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사(私)’라는 글자에서 출발해 아주 작은 일부터, 행동에서부터 시작해 진정으로 해냈습니다. 일을 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현재 제 층차에서 제가 법을 이해한 바에 따라, 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 성심껏 하려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을 할 때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살펴보고, 상처를 주지 않으면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 수동적으로 집착을 제거하던 데서 능동적으로 수련하기

글/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6년 6월에 법을 얻었고 올해 61세입니다. 저는 수련에서 별로 정진하지 못했고, 다른 수련생들처럼 대면해서 사람을 구한 감동적인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며 걸어온 이 과정에서 저는 수동적인 수련에서 점차 능동적으로 수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머릿속으로 문제를 생각할 때 그런 좋지 않은 생각과 관념을 힘껏 배척하고, 좋지 않은 사유를 따라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막내로, 네 살 남짓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오빠, 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고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에 매우 강한 의존심이 생겼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대형 국영기업에 배정돼 관리 업무를 맡았는데, 급여 대우나 근무 환경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수준이라 제 안일심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저를 무척 아끼고 사랑해주었고,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으며 아들 내외의 직장도 모두 좋아서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안 일을 거의 도맡아 했고 저는 월급을 그에게 맡긴 채 우리집 땀감이나 쌀, 기름, 소금 같은 살림살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며 스스로 매우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에 대한 제 의존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실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는 제 안일심과 의존심은 이미 매우 커져 있었지만 저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완전히 사람 속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저녁으로 화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2021년에 저는 거대한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남편이 병업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쩌면 남편에 대한 저의 완전한 의존이 구세력에게 빌미를 잡히게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장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듯이 집착을 제거하고 나서야 비로소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막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너무나 망연자실해서 정말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비록 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머릿속에는 늘 이런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하루는 제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그녀의 남편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남편이 살아 있을 때 내게 잘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죽으면 죽은 거지 뭐가 슬프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럼 나는 왜 슬플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를 내려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진정으로 내려놓지 못한 것은 저에 대한 그의 보살핌이었고 저 스스로 생활을 즐기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제 사심과 안일심이었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것은 제가 추구하던 이른바 아늑한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구세력이 내 남편을 박해해 죽게 하고 또 내 집착을 이용해 나를 망치려 하는데, 구세력의 뜻대로 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는 법공부와 연공을 할 때도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자주 멍하니 있었습니다. 수련생들은 저를 돕기 위해 우리집에 법공부 팀을 꾸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들여 법공부를 하고 법을 베껴 썼습니다. 저는 A4 용지에 ‘안일심을 버리자’라는 글자를 적어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자신을 일깨웠으며,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안일심을 버리자’라는 글자를 보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의존심 역시 안일심에서 파생된 것이고 모두 사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 다른 사람이 베푸는 것에 의지해 혼자 안일한 생활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법리는 깨달았지만 이 마음을 정말로 닦아버리는 데는 그래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남편에 대한 의존심이 다시 아들에게 옮겨갔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아들을 찾으려 할 뿐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주 사람의 이치로 일의 옳고 그름을 가늠하며 자신이 수련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일이 무척 바빠 매일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자주 쉬지 못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저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저는 당시 아들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늘 제 기분만 고려했습니다. 아들이 자주 저를 보러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고, 그들이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싫어하며 불만을 품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전혀 자신을 닦지 않으면서 오히려 스스로 억울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큰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 이 일은 이렇게 해야 하고 저 일은 저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무척 화가 나서 그녀에게 “언니의 이견 다 사람 마음이야. 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라고 말했습니다. 이틀이 지나 큰언니가 또 제게 그 일들에 대해 말했을 때, 저는 문득 ‘내가 바